

〈춘향전〉 관련 자료 몇 종에 대하여*

전상욱**

1. 들어가는 말
2. 송동신간 경판 20장본
3.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
4.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
5. 결론

1. 들어가는 말 : 〈춘향전〉의 흐름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춘향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전하는 문헌 자료만으로 따져 볼 때 만화(晩華) 유진한(柳振漢)이 호남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와 1754년에 남겼다는 <春香歌二百句押支韻>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전승되어 왔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소설이나 시는 물론 창극, 연극, 영화, 마당놀이, TV드라마의 형식으로까지 변화하면서 여전히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18~20세기 초에 판소리나 소설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호응을 받았다면, 20세기 초 이후에는 창극,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근현대적인 대중예술 양식과 접목하면서 계속 새롭게 변모해 왔던 셈이다. 때로는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랑이야기로, 때로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영웅이야기로 읽히기도 했고, 사회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문제적인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연·영상예술

* 이 논문은 2011년 2월 9일 국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도움을 주신 정병설 교수(서울대)와 이지영 선생(아주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시대배경으로 각색되기도 하고, 중심인물을 춘향이 나 이도령이 아닌, 신관사또, 월매, 향단, 방자 등으로 설정하여 신선한 서사적 재미를 안겨주는 등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춘향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고전 가운데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변모해 온 작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근대 이전에 독서물로 간행된 <춘향전> 자료는, 판소리 창본을 제외하고 본다면, 소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소설이 독서대중을 확보하여 대중문학으로 완연하게 자리를 잡게되는 18~19세기에는 세책본(貰冊本)과 방각본(坊刻本)으로 제작된 이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독자에게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세책본은 18세기 중엽 이미 상층 사대부 여성을 중심으로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었다. 비록 세책본이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책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대량인쇄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필사본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8세기 당시의 세책 실물자료가 현재까지 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의 세책본 <춘향전>이 남아 있어 그 유통의 정황을 어렵잖이나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계에서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남원고사>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춘향전>, 그리고 동경대 아천문고본 <춘향전>, 영남대 도남문고본 <춘향전> 등이 세책으로 유통되었거나 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텍스트들이다. 이들을 세책 계열이라고 이름한다면, 세책 계열 <춘향전>은 방각본처럼 분량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수만으로 8만여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그에 따라 어떠한 <춘향전>보다 풍부한 서사와 다채로운 묘사, 그리고 가요들이 나타나고, 생생한 일상어에서부터 어려운 한시 구절까지 다양한 언어 표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방각본은 세책본에 비해 묘사가 약화되고 기본적인 서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경판본은 세책본의 내용을 적당히 축약하여 만들어진 35장본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분량이 줄어들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16장본까지 소설 독서시장에서 세책본과 경쟁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나

름대로의 목적을 위해 변모해 왔다. 그러나 세책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주에서는 반대로 적은 장수의 29장본에서 84장본까지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전라도 지역의 판소리 성장과 더불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완판본의 출판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모했던 양상은 제각각이지만, 세책본과 방각본이 서로 경쟁하며, 또는 독점적인 위치에서 18~19세기 소설 독서시장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근대식 활판인쇄기술로 <옥중화>(1912), <고본춘향전>(1913) 등이 간행되면서 세책본과 방각본은 더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해 물러나고, 이후 <옥중화>, <고본춘향전>의 수많은 아류작들이 간행되어 춘향전의 인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으로 대표되는 근현대식 소설 <춘향전>으로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그 외에 <춘향전>에 대한 한문식자층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일련의 한문본 춘향전과 안이 아닌 밖의 시각을 반영하는 외국어 번역본 춘향전들은 그 이본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춘향전>의 색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비록 이들 이본들은 문자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일반대중 독자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한글 <춘향전>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춘향전 서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학들의 노력으로 인해 <춘향전> 자료는 만화본 <춘향가>부터 1930년대 활판본소설까지만으로 한정하더라도 100여 종을 훨씬 넘는 이본들이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발굴되지 못했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세 종의 이본을 거론하고자 한다. 송동신간 경판 20장본과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 그리고 프랑스판 춘향전이 그것이다. 이들 개별 이본들은 그 자체로 대단히 높은 의의를 지니는 작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서지사항에 대한 소개와 작품의 대체적인 의의와 가치를 점검해 봄으로써

3) 이상 세책본과 방각본 <춘향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상욱, 「세책계열 <춘향전>의 특성」(이윤석 외 편, 『세책 고소설 연구』, 해안, 2003)과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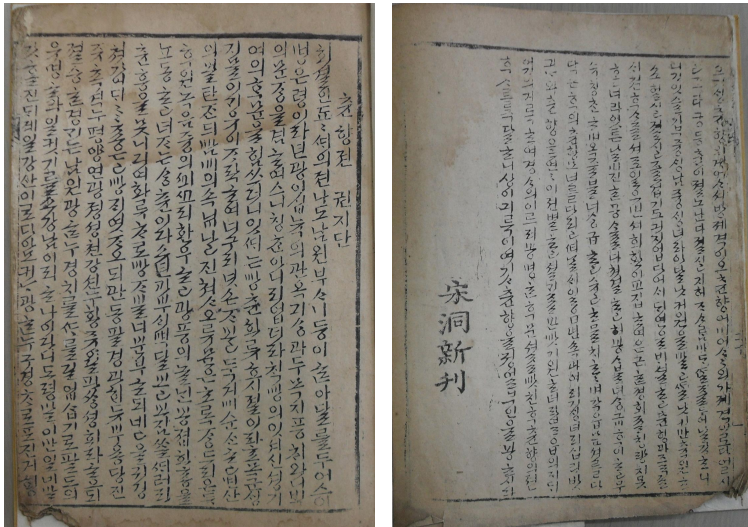
<춘향전> 자료의 질량을 조금이나마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 송동신간 경판 20장본

서울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던 경판 춘향전은 세책 계열 춘향전을 축약하여 만든 경판 35장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기존의 세책 계열 춘향전이나 경판 35장본과는 일부 서사단락의 위치와 행문 표현이 달라지는 경판 30장본이 등장하여 방각본 <춘향전>의 시장 경쟁이 시작되었다. 세책 춘향전의 내용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경판 35장본과 그 자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경판 30장본의 경쟁은 30장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는데, 30장본의 동형이판본이 3종이나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30장본에서 시작된 경판 춘향전의 변모를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경판 23장본이다. 경판 23장본은 이후에 간행되는 경판본과 안성판본 모두의 모본이 되고, 내용상의 큰 변화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판 춘향전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다. 23장본은 세 방향으로 변모하는데, 23장본 전체를 축약하여 개각한 안성판 20장본이 있고, 23장본의 일부 판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남은 부분을 축약하여 개각한 경판 17장본A가 있으며, 23장본의 일부를 번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축약하여 개각한 경판 17장본B가 있다. 그 후 17장본B의 일부를 번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축약하여 만들어진 것이 경판 16장본이다. 16장본에는 번각한 동형이판본이 있다.⁴⁾ 결국 경판(안성판 포함) 춘향전은 장수를 기준으로 할 때 35장, 30장, 23장, 20장, 17장, 16장본 등 6종의 판본이 있는 것이고, 동형이판본을 따로 계산했을 때에는 모두 10종의 판본이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에 본고에서 소개하는 송동신간 경판 20장본을 추가하면 현존하는 판본은 모두 11종이 된다.⁵⁾

4) 이상 경판 춘향전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이창현의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태학사, 2000)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판본들을 추가해 전상욱의 앞의 학위논문에서 확대·보완되었다.

5) 송동신간 경판 20장본의 사진자료를 제공해 준 유춘동 동학(연세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송동신간 경관 20장본은 일본 도야마(富山)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발굴된 경관(안성판 포함) 춘향전 이본 가운데는 경관 20장본은 없었고, 20장본으로는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가 새겨진 안성판본만이 알려졌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도야마 대학 소장 송동신간 경관 20장본은 안성판 20장본의 번각본이다. 경관 20장본은 권수제가 ‘춘향전 권지단’이고, 면당 행수가 15행이며, 20장 뒷면 11행까지 본문이 서술되고 나서 ‘宋洞新刊’이라는 간기가 나타난다. 판심제는 ‘춘’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어미는 이엽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판권지는 붙어 있지 않고, 전통 한지가 아닌 양지(洋紙)에 인쇄된 것이 특징적이다. 경관 20장본은 본문의 글자체와 간기를 제외하고는 안성판 20장본과 글자의 위치까지 모든 서지사항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두 판본은 번각 관계에 놓이는 것이 분명한데, 두 판본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적인 표기가 존재하고, 경관 20장본이 안성판 20장본에 비해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오각의 빈도수도 훨씬 높다는 점에서 경관 20장본이 안성판 20장본을 번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자체의 모양이 안성판 20

장본은 부드럽고 유려한 데 비해, 경관 20장본은 각이 지고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관계를 유추하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⁶⁾

송동신간 경관 20장본이 안성판 20장본의 번각본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송동신간본에서 이룩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송동신간본은 유효한 가치를 지닌다. 우선 안성판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안성판본은 현재 11종 정도의 작품이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 경관본을 축약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경관본의 아류작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안성판본이 이후 경관본에 다시 영향을 끼친 예들이 드러나고 있다.⁷⁾ 대표적인 것으로 안성판 <삼국지> 권3(20장), 안성판 <양풍전>(20장), 안성판 <홍길동전>(23장) 등은 모두 선행 경관본을 축약하여 만들어진 판본이지만, 이후 각각 미동신간 <삼국지> 권3(20장), 경관 <양풍전>(20장), 어청교 <홍길동전>(23장)의 번각 모본이 되었다. 여기에 안성판 <춘향전>(20장)과 송동신간 <춘향전>(20장)까지 더해 본다면 안성판본이 경관본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알려져 있는 송동신간본 8종은 대부분 안성판본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춘향전>에서는 안성판본과 송동신간본이 번각이라는 직접적인 관계를 주고 받았다는 점이 독특한 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송동신간본이 포함된 도야마대학 소장 한국소설 자료들도 주목의 대상

- 6) 번각관계에 있는 두 이본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후행본으로 선행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더 나은 상태의 이본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만, 한글방각본에서는 반대로 후행본이 선행본보다 오각의 빈도도 더 높고 판각의 상태도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목판을 이용하는 방각본의 제작방식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방각본에서 번각을 할 때에는 선행본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정결하게 필사한 판하본을 만든 후 이를 목판에 뒤집어 붙여서 판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본 자체를 판하본으로 삼아 판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행본의 오류를 제대로 수정하면서 더 좋은 각자체로 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경관과 안성판 한글방각본소설 가운데 경관 전체를 번각한 안성판본은 단 한 작품도 확인된 바가 없지만, 안성판 전체를 번각한 경관본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삼국지>(20장본), <양풍전>(20장본), <홍길동전>(23장본)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때, <춘향전> 안성판 20장본을 번각한 후행본이 송동신간 20장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 7) 이창현, 앞의 책 및 최호석, 「안성판과 경관의 거리」(『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참조.

이 될 만하다. 도야마대학 소장본은 그 동안 연구자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의외로 한국의 고전소설과 신소설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도야마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이들 자료를 ‘조선개화기대중소설원본(朝鮮開化期大衆小說原本)’이라는 이름의 총서로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책수가 264책에 이른다. 여기에는 방각본과 활판본 고전소설과 활판본 신소설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활판본 고전소설·신소설은 1900~20년대에 발행된 초간본들에서부터 1950~60년대에 세창서관 등에서 발행된 후대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방각본으로는 <남훈태평가>를 포함하여 경판본 15종과 완판본 7종 등 모두 22종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도야마대학 소장본은 동경대의 소창진평(小倉進平)문고, 천리대의 금서룡(今西龍)문고, 교토대의 하합홍민(河合弘民)문고, 동양문고의 전간공작(前間恭作) 기증본 등에 비해서 자료의 수집 및 문고의 조성 시기가 늦지만, 이들 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동신간본이 한지가 아닌 양지에 인쇄되었다는 점도 방각본 유통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양지 인쇄는 방각본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난 대단히 영세한 출판방식으로, 한지에 단면으로 인쇄하여 책장을 반으로 접어서 제책하는 전통적인 제작방식이 아니라, 값싼 양지에 양면으로 인쇄하여 책장을 반으로 잘라 제책하는 것을 말한다. 1920년대까지도 한남서림에서 좋은 한지에 인쇄된 경판본을 간행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한남서림보다 훨씬 영세한 출판업자가 일부 고전소설의 판목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지에 인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⁸⁾ 이처럼 양지에 인쇄된 방각본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도 앞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송동신간 경판 20장본의 발굴이 가지는 마지막 의의는 경판방각소설에서 지니는 <춘향전>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8) 송동신간본이 양지에 인쇄되었다고 해서, 이 판본이 방각본의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송동신간 20장본은 분명 경판 17장본, 16장본 등보다는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 판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한지에 인쇄되었을 것이지만 그때의 책은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이 없고, 시간이 흘러 한지에 대한 가격 부담 때문에 양지에 인쇄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판목으로 양지에 인쇄한 것이 현재 전하는 도야마대학 소장 송동신간 20장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는 점이다. 동형이판본을 개별적인 이본으로 계산했을 때, 경관 <춘향전>은 모두 11종의 판본이 확인된다. 이는 <소대성전>(7종), <임장군전(임경업전)>(7종), <홍길동전>(6종), <심청전>(5종), <조용전>(5종)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19세기 중엽~20세기 초 서울의 방각본 독서시장에서 <춘향전>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장수(張數)가 다른 이형이판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장수의 동형이판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시기에 집중적인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자료의 발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춘향전>이 이형이판본뿐만 아니라 동형이판본의 수요에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훨씬 많은 이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독서시장에서 경관 <춘향전>의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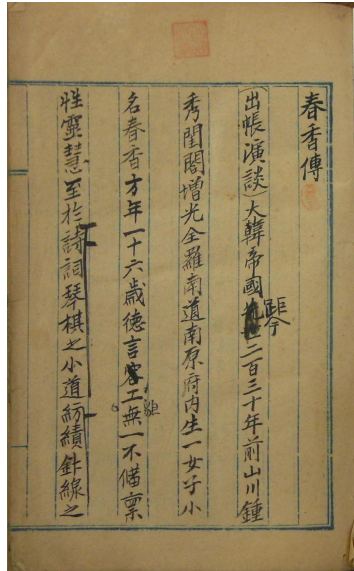
3.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

한문본 춘향전은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만화본 <춘향가>(1754)를 비롯하여 10여 종의 자료가 전하고 있다.⁹⁾ 이들 한문본은 한글본과는 달리 한시나 희곡의 형식으로도 나타나고, 내용도 비교적 다양하며, 작자의 주관이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글소설을 향유했던 독서대중과는 다른 주체가 <춘향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여규형(呂圭亨)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은 서강대 로올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광곽과 판심, 그리고 계선이 인쇄된 세로쓰기 규격용지에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이렇게 필사되어 있는 책이 서강대에는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한 책은 [고서 남67]이라는 청구기호에 ‘남원소설’이라는 표제로 목록에 올라 있고, 다른 하나는 [고서 춘92]라는 청구기호에 ‘춘향전’이라는 표제로 목록에 올라 있다. 제책은 양장(洋裝)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들이 서강대에

9) 정하영, 「<춘향전> 한문이본군 연구 (『성곡논총』 29, 성곡학술문화재단, 1998) 참조.

입수되기 전 통문관 서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로올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들은 거의 대부분 1960년대에 통문관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책마다 구입일자와 가격이 적혀 있다. ‘남원소설’은 1968년 10월 31일에 2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춘향전’도 같은 날 같은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⁰⁾ 두 책을 나누어 제작한 것은 인쇄용지의 색이 다르기 때문인데,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춘향전 [춘92]’ 전체와 ‘남원소설 [남67]’의 전반부는 연결된다. ‘남원소설’ 후반부는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든 원고본이다.



이 필사본 두 책을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으로 보는 이유는, 필사된 내용이 현재 전하는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과 거의 유사하고, 두 책 모두 본문 첫 장에 ‘呂運慶之藏書’로 관독되는 소장인이 적혀 있으며, 필사된 글자체가 여규형의 필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규형이 지은 것으로 일찍이 알려진 한문본 <춘향전>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고려대, 단국대, 동양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와 서강대본 필사본은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 여운경은 여규형의 양아들의 아들, 즉 양손자의 이름이다. 필사체에 대해서는 문우서림 김영복 선생의 조언을 받았고, 서강대에 소장되어 있는 여규형의 또다른 원고본인 <남천일록(南遷日錄)>, <하정시수초(荷亭詩收抄)>, <하정문수초(荷亭文收抄)>, <제탄재이판서문(祭坦齋李判書文)> 등에서 확인되는 필체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따라서 여규형 사후 그가 소장했던 자료들을 집안에 보관하다 어느 시점에 손자 여운경이 통문관에 그것들을 모두 매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10) \200 / 10-31-68 / hib / 通文館이라는 기록이 본문 앞장 상단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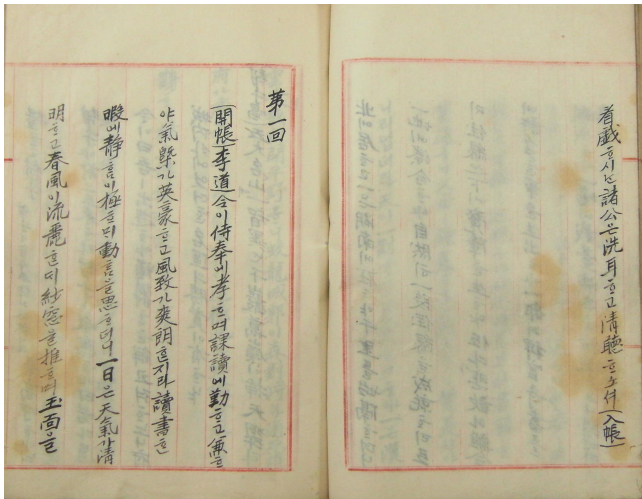
앞서 ‘춘향전’ 전체와 ‘남원소설’의 전반부가 연결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은 표지를 제외하면 모두 34장의 규격용지에 내용이 필사되어 있는데,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서두 출장연담(出帳演談)부터 시작해서 제6회의 일부까지가 나타난다. ‘남원소설’은 전체 113장의 규격용지에 내용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전반부 49장까지가 ‘춘향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6회 일부부터 한문본 <춘향전>의 마지막 출장연담까지의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춘향전’의 마지막 구절과 ‘남원소설’의 첫 구절이 한문본 <춘향전>을 기준으로 할 때 완전하게 연결¹¹⁾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83장(34+49)을 묶어서 제책을 했어야 했지만, 규격용지의 색이 달랐기 때문에 통문관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다. ‘남원소설’의 후반부 60여 장의 내용도 같은 한문본 <춘향전>인데, 여기에는 한글로 현토가 달려 있다. 여규형이 또다른 목적으로 현토본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한글현토필사본은 서두부터 제7회까지만 필사한 채 마무리되었다. 원래는 이 이후의 원고본도 여규형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을 듯한데, 매각의 과정에서 유실된 듯하다. 따라서 ‘춘향전’ 전체와 ‘남원소설’ 전반부를 묶어서 <원고본A>로, ‘남원소설’ 후반부를 <원고본B>로 지칭할 수 있겠다.

기존에 알려진 여규형의 한문본 <춘향전>을 선행연구자들은 한결같이 필사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¹²⁾,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고려대, 동양문고 소장본들을 원본 또는 이미지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책들에 나타나는 글자의 위치는 물론 글자체까지도 마치 복사를 한 것처럼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아무리 정교하게 필사한다 해도 나타날 수 없는 결과이다. 대량인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데, 광곽이나 판심이 보이지 않고, 글자의 획이 붓처럼 굵지 않고 펜처럼 가는 것으로 보아 유인본(油印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

11) ‘춘향전[춘92]’의 마지막은 ‘道令曰若有此身不負此心’에서 끝나고, ‘남원소설[남67]’의 처음은 ‘(春香唱)君家佳在漢城中...’으로 시작된다. 기존에 알려진 여규형 한문본에서는 이 두 구절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정하영, 「한문연본 <춘향전>고」(『한국언어문학』 23, 한국언어학회, 1984) 및 김종철, 「한문본 춘향전 연구」(『인문논총』 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다. 이 한문본에 ‘광무연간(光武年間)’, ‘원각사(圓覺社)’, ‘대한제국(大韓帝國)’ 등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1908~1910년 사이¹³⁾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라면 유인본 출판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원고본A>와 <원고본B>에는 교정을 본 흔적이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교정의 결과가 대체로 <유인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고본A>와 <원고본B>는 <유인본> 출판을 준비하기 위한 필사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정의 결과가 <유인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원고본 두 종 외에도 더 많은 원고본들이 존재했을 것이며, 그것들 중 최종원고본이 <유인본> 출판의 대본이 되었을 것이다.

<원고본A>, <원고본B>, <유인본>의 구체적인 행문을 비교해 봄으로써 원고본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성립연대를 이인직의 행적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1909년 5~11월 경이라고 한정할 바 있다.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의 수용 전환」(『관소리연구』 28, 관소리학회, 2009)

원고본A : 第一回 (開帳) 李道令*讀書之暇, 靜極思動, 一日天氣清明, 春風流麗, 推紗窓擡玉面, 高呼幫子幫子官奚俗稱曰, 幫子近前來. 幫子噉應曰喏. 道令曰, 吾欲出遊*, 府城內外有何名區勝賞否. 幫子曰有.

원고본B : 第一回 (開帳) 李道令이 侍奉에 孝하며 課讀에 勤하고 兼하여 氣槩가 英豪하고 風致가 爽朗하더라 讀書한 暇에 靜함이 極히디 動함을 思하더니 一日은 天氣가 清明하고 春風이 流麗하더 紗窓을 推하며 玉面을 擡하고 幫子幫子官 府小隸의 俗稱이라를 高呼하여 曰, 幫子야 前으로 來하라. 幫子 | 噉應하여 曰喏다. 道令이 曰 吾 | 出遊하여 煩鬱함을 解코져 하노니 府城內外에 었더 名區의 勝賞이 有하나.

유인본 : 第一回 (開帳) 李道令孝于侍奉, 勤於課讀, 兼之氣槩英豪, 風致爽朗, 讀書之暇, 靜極思動, 一日天氣清明, 春風流麗, 推紗窓擡玉面, 高呼幫子幫子官 府小隸俗稱曰, 幫子近前來. 幫子噉應曰喏. 道令曰, 吾欲出遊以解煩鬱, 府城內外有何名區勝賞否. 幫子曰有.

위의 비교를 통해 <원고본A>보다 <원고본B>가 최종출판물인 <유인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두 종 원고본의 거의 전체에서 보인다. 따라서 <원고본A>는 원고본 가운데서도 비교적 초고본에 가깝고, <원고본B>는 몇 차례 교정의 과정을 거친 결과에 한글현토를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소설의 출판원고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은 그 자체로서도 희소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여규형이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를 교정해 나갔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자료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¹⁴⁾

14) 그런 점에서 활판본 <금방울전>의 검열·출판 원고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흥미롭다. 이윤석, 「<금방울전> 활판본 원고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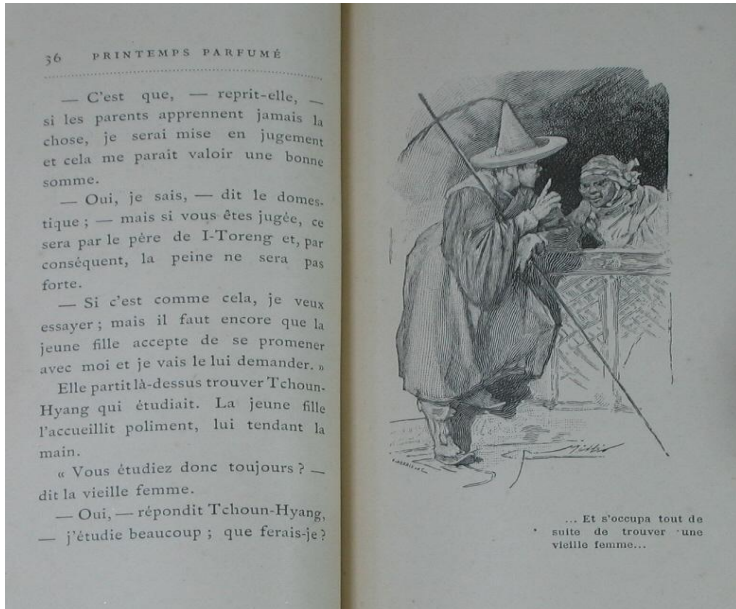
4.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

외국인에 의해 번역된 <춘향전> 자료들은 당시 우리 내부에서는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고, 번역이 이루어졌던 시간과 공간에 존재했던 <춘향전>의 유통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물론 번역의 목적에 따라 알렌(H.N. Allen)의 'Chun Yang, the faithful dancing-girl wife'처럼 상대적으로 원래 <춘향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도 있지만,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의 <鷄林情話春香傳>이나 로니(J.-H. Rosny)의 *Printemps Parfumé*처럼 상당 부분 내용이 변개된 경우도 있다. 나카라이 도스이의 일본판은 신문에 연재된 것이고, 로니의 프랑스판은 대중문고본으로 출판된 것이니, 모두 자국의 대중독자를 강하게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로니의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을 주목하고자 한다. 프랑스판 춘향전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소개한 김윤식의 연구¹⁵⁾ 이후에는 국문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홍종우에 주목한 역사학자의 단편적인 관심과 프랑스어 해독이 자유로운 불문학자들의 몇몇 연구만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은 프랑스의 소설가 로니가 당시 파리에 유학을 와 있던 홍종우(洪鍾宇)의 도움을 받아 1892년 9월 기욤소총서(Petite Collection Guillaume)라는 문고본의 하나로 출판한 책이다. 프랑스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홍종우가 일본어 통역을 통해 <춘향전> 내용을 로니에게 전달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홍종우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 원래 <춘향전>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파리에 머무는 동안 홍종우는 기메박물관에서 조선·일본·중국 서적을 분류하는 일을 담당했고, 당시 기메박물관에는 샤를 바라(Charles Varat, 1842~1893)가 1888~1889년 조선의 제물포-한양-부산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많은 미술공예품과 서적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춘향

15) 김윤식, 「홍종우와 춘향전의 프랑스어 번역」,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전> 경관 23장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홍종우는 이 경관 23장본에 의거해서 <춘향전>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프랑스판에 이도령 부친의 이름이 ‘이등(I-Teung)’으로 나타나고, 이도령에 대한 인물 소개로부터 작품이 시작되며, 춘향이 옥중에서 황릉묘에 다녀오는 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프랑스판 춘향전이 경관 23장본 등 경관본 춘향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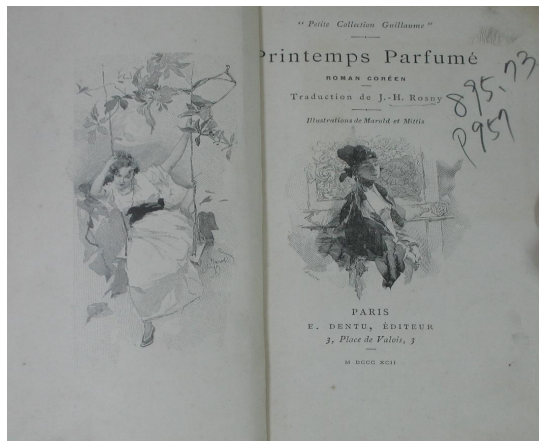


프랑스판 춘향전은 대체로 경관 춘향전의 서사를 따르면서 세부적인 묘사 장면이나 독립적인 삽입가요 등을 탈락시키면서 번역되었지만, 만남-사랑 대목에서의 변화는 매우 독특하다. 프랑스판 춘향전의 개성적인 변화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의 딸이 아닌 ‘평민의 딸’로 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대가 시작되고도 한참동안 우리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프랑스판 춘향은 사또(관리) 자체 이도령에게 어떠한 의무나 강요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평민으로 나타난다. 춘향을 평민의

딸로 설정했기 때문에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광한루에서 그녀를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이도령의 모습은 똑같지만, 이도령은 그녀를 자기 마음대로 불러오게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만남이 필요했는데, 프랑스판에서는 이도령이 여장(女裝)을 하고 춘향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춘향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도령이 집에 돌아와 괴로워하고 있는데, 방자가 한몫을 단단히 벌 속셈으로 이도령에게 여장을 하고 춘향에게 접근하라는 계락을 짜 준다. 원래 <춘향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노파’를 새로 설정해 먼저 춘향에게 접근해서 집밖으로 산책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게 하는 한편, 이도령에게는 여장을 하고 같은 장소로 나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한다. 원래 <춘향전>의 방자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이고 용의주도하게 형상화된 방자의 계략 덕분에 여장한 이도령은 춘향과 만나 동성(同性)으로서 우정을 나누게 되고, 두 사람은 우정을 넘어 동성적인 사랑 근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나서야 이도령은 옷을 벗어 자신이 남성임을 춘향 앞에 밝히고 사랑을 고백한다. 당황한 춘향이 평민과 귀족(관리)이라는 계급 차이를 들어 거절하다가 이도령에게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다음에야 사랑을 받아들인다.

프랑스판 춘향전의 만남과 사랑 대목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홍종우에 의해 고안되었다기보다는 번역자 로니의 구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고전 소설로서의 <춘향전>에 춘향의 신분이 평민으로 설정된 이본은 없으며, 여장 화소 또한 고전 소설에서 극히 드문 예에 속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중에게 ‘기생’이라는 특수한 존재에 대해서 이국



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로니는 생각했던 것 같다. 대신 평민으로 신분을 설정하여 신분적 차이가 나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춘향의 신분이 평민으로 설정됨으로써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남녀 두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이 매우 진중하고 점잖다는 점이다. 따라서 첫날밤 장면은 흥겹거나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애뜻하며, 이별과 고난 대목에서는 슬픔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지 않다. 만남과 사랑 대목 이후의 내용에서는 두드러지는 개성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19세기 말까지 조선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춘향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프랑스판 춘향전은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프랑스판 춘향전이 가지는 또다른 자료적 가치는 1892년 이 작품이 파리에서 출판된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된다. 출판 이후 파리에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판 춘향전은 <사랑의 시련(L'Épreuve d'Amour)>이라는 발레의 기본 서사로 활용된다. 프랑스 남부 모나코 소재 몬테카를로 러시아발레단은 1936년 4월 4일 <사랑의 시련>을 초연하는데, 당시 공연안내책자에 이 작품의 부제가 '충양과 욕심에 찬 관리(Chung-Yang et le Mandarin Cupide)'라고 나와 있다. 연출자가 추구한 발레스타일에 맞게 서사가 상당히 변형되었지만, '충양'이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이나 그녀가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성취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서사는 <춘향전>과 관련이 분명히 있다. 이 발레단이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나코에 위치하고 있고, 안무를 맡았던 미하일 포킨과 무대 및 의상을 담당했던 앙드레 드랭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예술가라는 점에서 프랑스판 춘향전이 이 발레의 기본적인 서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¹⁶⁾ 발레 <사랑의 시련>은 1950년대에 핀란드에서 복원되어 공연을 이어나갔고, 지난 2007년 국내에서도 국립발레단에 의해 공연이 된 바 있다.

프랑스판 춘향전의 좀더 분명한 영향은 베트남판 춘향전에서 찾을 수 있다. 6~7년 전에 베트남에도 <춘향전>이 있다고 하여 대중매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트남학을 전공한 한 학자의 논문¹⁷⁾에서 시작되

16) 전주MBC 창사42주년 특집다큐 <춘향> 참조.

었다. 베트남판 춘향전인 <춘향낭자(Nang Xuan Houng)>를 발굴한 배양수 교수에 따르면, 1910년 티쑈(H. Tissot)라는 사람이 북부베트남 총독부에서 프랑스인을 상대로 베트남어를 강의하는 필사본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춘향낭자>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쑤언 호영(Xuan Houng)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한 똥느라이(Tong Nhu Lai)라는 관리의 아들이 나누는 사랑이야기인데, 춘향이 평민의 딸로 나오고, 똥느라이가 여장을 하고 춘향에게 접근한다는 내용이나 두 사람이 서약서를 주고 받은 후 비로소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 등이 프랑스판 춘향전과 완전히 똑같다. 남주인공의 이름이 베트남식으로 바뀌었고, 번역 연습을 위한 교재의 예문으로 수록되느라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프랑스판 춘향전의 영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발굴자는 프랑스판 춘향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일본 등에서 조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들려와 티쑈가 교재에 수록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춘향전>의 이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실상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로니 번역의 프랑스판 춘향전을 접하고 그것을 들려와 티쑈에게 번역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프랑스판 춘향전으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긴 베트남판 춘향전에 얽힌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5. 맺음말

18세기 이래 <춘향전>은 소설, 판소리, 시, 창극,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양식으로 변모하면서 현재까지 전승·재창작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생성된 소설 <춘향전> 이본 중 새로 발굴된 송동신간 경판 20장본과 여규형의 한문본

17) 배양수, 『베트남판 춘향전의 근원』, 한국공연문화학회 편,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화』, 박이정, 2004.

18) 이상 프랑스판 춘향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상욱,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참조.

<춘향전>의 원고본, 그리고 새롭게 자료적 가치를 조명해야 하는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 세 종을 소개하고 각각의 자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송동신간 경판 20장본은 기존에 알려진 안성판 20장본의 번각본이다. 그동안 학계에 별로 잘 알려져있지 않았던 일본 도야마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한지가 아닌 양지에 인쇄되었다는 점, 그리고 안성판과 경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본 발굴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규형 한문본 <춘향전>의 원고본은 서강대 로욜라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으로, 하정 여규형이 한문본 <춘향전>을 간행하기 위해 미리 필사해 두었던 원고본이다. 앞으로 이 원고본과 기존의 한문본과의 자세한 행문 비교를 통해 여규형의 한문본 <춘향전>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은 1892년 프랑스의 소설가 로니가 홍종우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어로 번역한 <춘향전>이다. 19세기 말 외국인에 의해 변형된 <춘향전>의 서사와 그의 눈에 비친 <춘향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프랑스판 춘향전이 이후 유럽과 베트남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기본적인 서지적 특성과 대체적인 의의를 살펴본 데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각 자료의 진면목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논의를 보완하고, 전체 <춘향전> 자료를 구성하는 의미있는 개별 이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다듬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윤식, 「홍중우와 춘향전의 프랑스어 번역」,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 김종철, 「한문본 춘향전 연구」, 『인문논총』 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 배양수, 「베트남판 춘향전의 근원」, 한국공연문화학회 편,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성』, 박이정, 2004.
- 송미경, 「여규형본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의 수용 전환」, 『판소리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 이윤석, 「<금방울전> 활판본 원고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전상욱, 「세책계열 <춘향전>의 특성」, 이윤석 외 편,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 전상욱,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 정하영, 「<춘향전> 한문이본군 연구」, 『성곡논총』 29, 성곡학술문화재단, 1998.
- 정하영, 「한문연본 <춘향전>고」, 『한국언어문학』 23, 한국언어문학회, 1984.
- 최호석, 「안성판과 경판의 거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About the several versions of Chunhyang-jeon

Jeon Sang-uk

Chunhyang-jeon is the most famous Korean classical novel, it has been handed down as the novel, pansori, poem, changgeuk, film and drama from the 18C until the present. In this study, I announced the three versions of the novel Chunhyang-jeon, generally been ignored the meaning and exist.

Songdong-singan Seoul edition(20-leaves) is one of the woodblock print as commercial publication. The identity of this version is the reprinting vesion of Anseong edition(20-leaves). This book is housed in the Toyama University in Japan. And in the Loyola library of Sogang University, there is a book in manuscript form of Chinese language Chunhyang-jeon that is written by Yeo Gyu-hyeong. This manuscript is made in order to publicate the writer's work printed by the oil printing.

French edition Chunhyang-jeon *Printemps Parfumé* was translated in 1892 by J.-H. Rosny who is a French famous novelist. This work was adapted for the French style, so heroine Chunhyang's social position was set to not Gisaeng(妓生) but the common people. As a result, hero Lee(李道令) had no choice to dress up as a woman for the meeting. Later *Printemps Parfumé* was based on the Ballet de Monte Carlo's <L'Epreuve d'Amour> in Monaco 1936, and the Tissot's textbook version <Nang Xuan Houng> in Vietnam 1910.

Key words: Chunhyang-jeon(春香傳), Songdong-singan(宋洞新刊), Seoul edition, Yeo Gyu-hyeong(呂圭亨), Chinese edition, *Printemps Parfumé*, J.-H. Rosny, French edition, foreign language version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